

그림 1은 산대품종의 수확직전 생육상황으로 마늘중 생산 전용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마늘중의 생육이 현저히 낮아 마늘중 수량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품종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는 산대품종의 수확시기에 따른 지하부 구특성 나타낸 것으로 저장후 45일에 조사하였으며, 특성을 보면 이차생장을 발생이 100%였으며, 상품수량을 기준으로 추대 후 25일에서 상품수량이 10a당 623kg으로 가장 높아 수확적기로 나타났다.

표 3. 산대 품종의 수확시기에 따른 지하부 특성

(저장 45일)

수확시기 (추대 후)	인편수 (개/주)	이차생장을 (%)	구중 (g/주)	구경 (mm)	구고 (mm)	수량 (kg/10a)	피해율 (%)	상품수량 (kg/10a)
15일	5.0	100	25.5	35.4	29.3	709.7	52.7	333
20일	4.8	100	30.5	39.0	31.5	848.8	35	551
25일	4.6	100	31.1	40.0	31.3	865.5	27.5	623
30일	4.7	100	31.3	40.2	31.5	871.1	50	435

\*피해율 : 이차생장을 제외한 녹변, 병해충 피해립, 열구의 총비율

## □ 한지형 신품종 마늘 수확시기 및 저장성 구명(2014~2015년)

### 1. 재료 및 방법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한지형 신품종 마늘 화산 등 5품종의 수확시기 및 저장성 구명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단양에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구는 휴폭 110cm×휴간 40cm의 두둑을 만들어 조간 20cm×주간 10cm 간격으로 1주 1본씩 파종한 후 3cm 정도 복토하였으며, 너비 120cm의 투명무공비닐(두께 0.02mm)을 이용 피복하였다. 파종은 10월 30일에 파종하였으며,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였다, 월동 후 고자리파리 방제를 위한 토양살충제(카보퓨란입제)를 1회 살포하였으며, 엽초 추출은 전체 출현기 중 엽초가 5cm 정도 자랐을 때 실시하였고, 엽초 추출 후 흙으로 비닐을 덮어 주었다. 품종별 수확시기는 추대 후 15일, 20일, 25일 3처리를 두어 실시하였으며, 마늘 피해율은 수확 후 45일 저장한 다음 조사하였다. 기타 관리는 관행에 준하였다.

### 2. 결과 및 고찰

표 4는 신품종 마늘 지상부 생육상황을 조사한 성적으로 출현율이 다산, 화산품종은 단양종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타 생육상황은 단양종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단양종에 비해 화경장은 신품종 다산, 화산, 대주 품종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엽록소는 다산, 화산품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신품종마늘 지상부 생육상황('15, 충북)

품종	출현율 (%)	초장 (cm)	엽초장 (cm)	엽초경 (mm)	엽수 (매/주)	화경장 (cm)	화경경 (mm)	엽록소 (SPAD값)
다산	78.6	68.7	27.2	9.4	7.9	82.9	4.7	72.1
화산	70.2	74.8	24.0	9.4	8.3	81.3	6.8	72.5
단산	82.5	70.5	20.5	9.3	8.4	-	-	56.5
대주	89.7	68.6	23.3	9.9	8.7	79.0	5.5	67.0
단양	87.3	70.4	20.0	9.8	8.3	49.7	4.6	55.5